KEB하나은행 통합 출범 기념 특별 기획전

NEW RELIGION NEW PERSPECTIVE展

"예술을 믿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어려웠다. 그런데 예술을 믿어주었으면 하고 바랐던 바로 그 방식으로 사람들이 약을 믿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대미술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데미안 허스트가 한 말이다. 그는 종교가 유한한 삶의 본질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듯이 현대인들은 약에 의지하며 연약한 삶의 불확실한 도피처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접점에 예술이 있다고 했다.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세계를 유심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KEB하나은행이 통합 출범을 기념하며 특별 기획한 'NEW RELIGION NEW PERSPECTIVE展'을 통해서다. 이번 전시는 압구정PB센터에서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외에도 무스타파 훌라시, 알레산드로 멘디니, 변종곤의 개성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데미안 허스트가 형이상학적인 종교와 과학,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면 무스타파 훌라시는 예술이 시간과 공간, 구상과 추상, 유한과 무한의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한다. 또한 변종곤은 이질적인 여러 오브제들을 때로는 시니컬하게, 때로는 익살스럽게 새로운 의미를 가진 존재로 재탄생시킨다.

이번 전시를 통해 누군가는 예술이란 불안을 잠재우는 의지의 대상으로, 다른 누군가는 어둠 속 혼돈을 통과하는 일을 찾는 도구로 마주할 것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예술이 아무 탈 없이 잘 흘러가는 일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돌부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끼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거나 나아갈 길을 내다보게 함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NEW RELIGION NEW PERSPECTIVE展'의 관람을 원하는 고객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압구정PB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2002-1933)로 문의하면 된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아트세미나, 갤러리투어 등으로 고객들을 초청해 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압구정PB센터에서 KEB하나은행 통합 출범 기념 특별 기획전인 'NEW RELIGION NEW PERSPECTIVE展'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거장 데미안 허스트, 무스타파 훌라시, 알레산드로 멘디니, 변종곤이 생각하는 예술의 정의를 알 수 있는 기회이다.

글 여경미 기자 **사진** 원동현 기자